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9)

예수님의 중보기도(4)

[본문: 요 17:13]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16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으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승천하신 후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데, 그 동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을 고난의 바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기에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으며 삶을 주셔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이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마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그릇과 같습니다. 물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이 육신이기에 때문에 ‘너희의 육신은 하나님이 성전이다’라는 성경말씀도 있습니다.

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도 꼬박꼬박 자야하고, 병에도 걸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궤도를 수정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가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수정을 해 주십니다. 안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하나가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기뻐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거룩하게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기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지금까지 내가 말한 대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너희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잡아삼키려고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기도제목들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심이었으나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의 재료가 됩니다. 근심의 재료는 곧 기쁨의 재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기쁨이 됩니다.

기쁨으로 사는 삶

계속해서 2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전에 받은 고통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덮으면 안됩니다.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남자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이를 가슴에 안으면 근심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낳고 싶어 한답니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함께 있었지만 기도를 몰랐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기도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요, 그것은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쁨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며 쾌락적이며 물질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요, 외형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쁨이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저 화려할 뿐입니다.

제가 연예인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마치 성경 속에서 튀어 나온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똑 같지만,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도 지방이 고향인 어느 가수 한분은 제가 설교만 하면 ‘오매 좋은 거, 오매 좋은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반, 연예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 화장을 다 지우고 왔습니다. 너무 울어서 화장이 다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화장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 이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예민하게 누리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기쁨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충만해 집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 즉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포장된 기쁨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음식이라고 할 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 ‘예’라고 대답하는데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항상 육신에 지면서 삽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의 앞에 기쁨이

시편을 보면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궤행을 구하겠는고(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충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내 안에 거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시편 16편 9~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30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을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의 옷을 입습니다.

시편 42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 아름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를 빼앗겨 버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방황하는 이야기가 이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시편 65편 11,1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연사(年事)에 관 썩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97편 11,12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죄를 벗어나면, 여호와를 의뢰하면, 거룩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11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찬송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지는, 기쁨의 샘이 솟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 옆에 가면 감기에 걸리듯이, 여러분의 곁에 가면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기쁨이요, 나의 능력이요, 평안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이 떠나가게 하셔서 기쁨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온누리신문 (<http://news.onnuri.or.kr>)